

물허진 보물

하 창 식 (부산대학교 고분자공학과)

미국에서의 1년간 방문연구를 마치고 막 귀국했을 때, 고국을 떠나 있으면서 느꼈던 IMF체제의 현실이,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살면서 (늘어난 실직자의 수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면에서, 1년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의 삶에서 느끼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다. 그런데, 땀 한푼없는 연구비로 실험 수행에 고생하는 필자 연구실의 대학원생들을 보면서, 이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퍼뜩 들게 되었다. IMF체제 때문에 대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산학협동관련 연구비를 예산에서 제외하고, 이미 지급한 연구비까지 “연구결과를 내지 않아도 좋으니” 환수해 간다는 해괴망측한 이야기까지 들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한국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같은 국가 연구비 지원기회조차 반감되고 연구과제 선정율도 10%가 채 안된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달포전인가. 연구원들의 높은 이직율 때문에 “대덕연구단지가 공동(空洞)화 되어간다”는 기사를 읽었었는데, 이것도 IMF위기 때문인가 하고 한참 생각해 보았다.

지난 9월말에, 심포지움 참석차 독일을 방문한 적이 있다. 이때 발표된 독일학자들의 논문내용도 그러했지만, 독일고분자 연구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막스 플랑크 고분자 연구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내용들 모두가, 눈앞의 응용보다, 깊은 학문성을 중시하는 것을 보면서,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순수 기초과학 연구는 항상 현실적인 경제논리에 밀려 뒷 자리로 물러서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았다. 이러면서, 노벨상 수상소식을 전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언제? 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회적 분위기를 볼 때 마다 서글픔을 느끼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IMF위기가 닥쳐오기 전에도 우리의 기초과학은 항상 응용연구에 비해 소홀히 다뤄져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과학기술자 스스로가 순수연구 보다는 개발 연구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징조가 여러 분야에서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한국과학재단이나 학술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비 선정 예를 보면, 순수한 기초연구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을 확율은 응용을 염두에 둔 연구계획서로 선정받을 확율에 비해 엄청 낮다. 기초연구 그 자체만을 지향하는 계획서는 아무리 우수한 계획서라도 항상 연구평가면에서 활용도와 국가적 공헌도가 낮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연구란, 경우에 따라서는 당장 응용되고 활용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참동안의 세월이 경과된 후 재평가되고 새롭게 재해석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모든 연구가 다 활용도가 크고 국가적으로 공헌도가 커야만 하는건지 잘 모르겠다. A교수는 순수한 합성 방법 하나를 개발해서 고분자과학의 신기원을 이루겠다는 포부로 늘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응용을 생각해서 유행처럼 너도나도 식의 순수성을 잃은 연구계획서에 밀려 늘 연구비 지원대상에서 벗어나 분노를 느낄 정도라고 이야기했다. 독일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는 순수 기초과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없이는, 노벨상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는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다. 아직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유명해진 이 광고 감독의 이 영화는 제작기간이 무려 11년이라고 들었다. 한 “팬찮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이 감독은 장면 하나 촬영하는데도 수십번을 되풀이하고 편집도 수십번 새로 하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였다고 들었다. 그가 11년간 한 작품에 공들인 노력은 올해 국제적인 영화상을 휩쓸면서 충분히 보상받고 있다. “팬찮은” 결과를 내는 연구는 어쩌면 “팬찮은” 영화만들기 보다 더 시간이 소요되고 더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지 모른다. 항상 말로만 과학기술입국이며,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과학기술 특히 기초과학은 항상 찬밥 신세이다. 국회 예산 심의 때도 건설교통 부분의 예산은 항상 증액되지만, 1차로 삭감되는 예산은 항상 과학

기술 부분이 차지한다.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기초과학이 푸대접받는 이런 현실은 결코 국가 장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텐데, 정책입안자들은 항상 눈앞의 현실만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 IMF체제를 맞아 대기업은 구조 조정 핑계로 어찌보면 기다렸다는 듯이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에 지원하는 연구비를 거둬들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솔직히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필자의 경험으로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신제품개발을 위해 신학협력연구를 신청하는 건수는 오히려 IMF체제 이후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 여하튼,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순수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이 가장 먼저 IMF위기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현실은 더욱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마냥 현실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꾸 목소리를 높여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언젠가는 기업가들은 물론 정치가나 정책입안자들의 인식이 바뀔 때가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져 본다. 희망은 언젠가는 실현이 될 꿈에 대한 힘의 원천이니까. 응용연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고분자학계 내에서도 자신만의 연구분야를 고집하면서 고분자 합성이나 고분자 물리 화학 등에서 순수 기초분야 그 자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화이팅을 외쳐본다.

자신의 연구분야가 지금은 연구비 지원혜택의 기회가 적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작게 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유행따라 하는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소홀하게 다뤄지지만, 독특한 연구분야인 자신의 연구결과가, 자신이 가장 이 분야에선 독보적인 존재이므로 언젠가는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연구에 매진하기를 바라면서, 21세기에 빛날, 한국의 문턱진 보배들인 그 분들에게 Wanda Hope Carter가 지은 “꿈을 실현하기 위한 26계명(To achieve your dreams, remember your ABC's)”이란 글을 바치고자 한다 (필자 나름대로 번역하면서 운율을 맞추기 위해 의역한 것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께서는 원문을 참조하여 뜻을 새기십시오).

꿈을 실현하기 위한 26 계명 (완다 호프 카터 지음)

부정적인 것은 피할지이다. 출처든, 사람이든, 장소든, 사물이든 행동이든 간에/자신을 믿되/모든 각도에서 사물을 바라보면서/결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말지이다./어제는 가고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 모르니 오늘의 삶을 즐길지이다./

가족과 친구는 문혀진 보물들이니 그들을 만나고, 주위에 그들 있음에 만족할지이다./자신이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꿈을 쫓을지이다.

자신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을 잊어 버리며/지금 하고 있는 바를 미루지 말라./아무리 힘들더라도 쉽게 될 것이라고 믿고 시도를 멈추지 말 것이며/자신을 가장 먼저 사랑하여야 하리라.

일을 만들도록 할 것이며/거짓말을 삼가고, 속이거나 훔치지 말라. 항상 공정하게 맞부딪치면서/눈을 크게 뜨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지이다.

일을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하되/중도에 일을 그만 두는 사람은 결코 성공이 없으며 성공하는 사람은 결코 중도에 그만 두는 일이 없음을 명심할지이다.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모든 것에 대해 읽고, 공부하고, 배울지이다./꾸물거리는 것을 멈추고/자신의 운명을 제어하도록 할지이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기 위해 자신을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자신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 할지이다./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을 더 필요로 해야 할 것이며/노력을 배가시키도록 할지이다.

자신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며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나니/자신의 목표에 겨냥을 맞추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할지이다.

To achieve your dreams, Remember your **ABC's** (by Wanda Hope Carter)

Avoid negative sources, people, places, things and/**B**elieve in yourself.

Consider things from every angle./**D**on't give up and don't give in.

Enjoy life today, yesterday is gone, tomorrow may never come./
Family and friends are hidden treasures, seek them and enjoy their riches./**Give** more than you planned to./**Hang** on to your dreams.
Ignore those who try to discourage you./**Just** do it./**Keep** trying no matter how hard it seems, it will get easier./**Love** yourself first and most.
Make it happen./**Never** lie, cheat or steal, always strikes a fair deal./**Open** your eyes and see things as they really are.
Practice makes perfect./**Quitters** never win and winners never quit.
Read, study and learn about everything important in your life./**Stop** procrastinating./**Take** control of your own destiny.
Understand yourself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others./**Visualize** it./**Want** it more than anything./**X**acellerate your efforts.
You are unique of all God's creations, nothing can replace you./**Zero** in on your target and go for it!
 (이 글의 저작권은 Day Dreams, Inc.(1995)에 있습니다.)

쉽 터 광 고

쉽터는 회원의 수필기사를 다루어 기술지 기사를 정독하시는 분들의 정신적 휴식을 가지시도록 하기 위한 장입니다. 그동안 쉽터란은 부산대학교 하창식교수의 수필을 실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많은 분들의 수필을 실었으면 합니다. 많은 기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 입 광 고

- 업 체 명 : 아성플라스틱밸브(주)
- 모집분야 : 플라스틱 및 고무실험 연구원
- 모집인원 : 남 1명
- 연 령 : 35세 미만
- 학력자격 : 화학 및 고분자 관련학과로서 대학졸업자
- 경 력 : 플라스틱 및 고무관련 실험기자재 1년 이상 운용하여 보신 분
- 근 무 지 : 안산 반월공장
- 연 락 처 : 경기도 안산시 원시동 836-5
 TEL. (0345)494-8193~4, 495-1735
 FAX. (0345)492-6650
- 금 여 : 추후 협의 결정